

‘1%대 예금’ 현실화...노인들 소득감소 삶의 질 하락

■ 초저금리 시대...이자생활자 불안감 고조

추가 금리인하 땀 연 2%대 예금도 ‘전멸’

정기예금 금리 사실상 0%...소비침체 우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섰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연 1%대 금리’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두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고객들의 체감 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개인고객 수가 2900만명으로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의 주력 예금상품은 ‘국민수퍼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연 2.29%에 그치고 있다.

하나은행의 대표상품인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과 ‘비빔 정기예금’의 금리는 각각 연 2.2%이며, 우리은행의 ‘우리유후정기예금’은 3000만 원 미만 가입시 연 2.3%의 금리를 준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주부 김모(40)씨는 “1년 전 연 2.9%짜리 정기예금을 농협은행에서 가입하고 미국에 갔는데, 이번에 만기가 돼 재가입하려고 보니 금리가 연 2.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 2% 초반대 예금상품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음 주에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금리의 하락이 예상돼 수신 상품의 금리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금리의 향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연 2.2%짜리 정기예금의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다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연 2.0% 선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현실화한다면 연 2%대 예금 상품도 ‘전멸’할 것이라는 게 은행들의 예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은행들로서는 연 2% 예금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며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볼 때 연 1%대 예금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한 일본은 이미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어 지 오래다.

지난해 일본의 한 은행은 우량고객에 대한 특판 마케팅을 펼치면서 1~3년 예금금리는 연 0.3%, 5년 금리는 연 0.35%를 제시했다. 일반 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내리는 등 ‘연 1%대 금리’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예금의 금리는 0%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문제는 한국이 일본이 간 길을 따라 초저금리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전찬수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초저금리 시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세계적인 초저금리 추세를 우리만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자소득의 감소는 노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80%대에 달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그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인복지 체계가 훨씬 미비해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전체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서민들 돈 묻어 둘 수도...굴릴 수도...

이자 소득자도 목돈마련 저축자도 고민

금융자산 예금이탈 경향 더욱 심해질 듯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 계층의 한숨이 깊어지게 됐다.

고객 금융자산가들은 이미 은행 예금상품에 미련을 버리고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찾아 떠난 지 오래됐다는 게 프라이빗뱅크(PB)들의 설명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돈 굴릴 곳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변동금리형 은행 대출을 가진 사람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을 다소 덜게 됐지만, 고정금리 대

출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돈 굴릴 데 없다”...금리 추가인하 예고에 한숨만=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더 낮추면 연 2% 초중반대의 금리 상품도 귀해진다.

금리 인하 소식에 노후자금을 예금으로 맡겨 놓은 이자생활자의 마음은 편지 않다.

김모(68·여)씨는 1년 전 5000만원을 저축은행의 연 3% 초반대 정기예금에 맡겨뒀다가 이

달 만기를 앞뒀지만 돈을 다시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다.

김씨는 “1년새 금리가 더 떨어져 이제는 예금을 해도 물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것 같아 걱정”이라며 “편다 주식은 반 토막 난 기억이 있어 입దు를 못 내는데 마땅한 대안이 안 보인다”고 푸념했다.

저금리 심화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목돈을 마련하려는 20~30대도 마찬가지다.

회사원 이모(32)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저축액 3000여만원을 최근 2% 초반대 금리를 직

음받는 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었다.

이씨는 “정기예금과 고금리 수시입출금식 통장 금리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위낙 저금리이다 보니 이자 수익은 이제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은 이미 투자상품으로=금융상품 투자정보를 자주 접하는 고액 금융자산가들은 이미 은행 예금에서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다.

PB들은 금리 인하로 예금 이탈 경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 서담구정금리팀 박근호 팀장(PB)은 “고연령대 은퇴자 고객 중에 간혹 예금만 고집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 드문 편”이라며 “정기예금이 메리트가 없다 보니 대부분 투자형 상품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우량 전자단기사채(ABSTB), 안정형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우량 채권형 펀드 등에서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형 상품 등이 그 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박스권 탈출

유동성 장세 수혜주

증권·은행 업종 관심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0.25%p 인하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으로 금융시장에 발표 전 이미 반영된 가운데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다.

금리발표 후 이주열 한은총재가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기술적 반등 이후 속도조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유보된 가운데 이번 주는 국내 보다는 해외 변동성 요인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동 및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채무협상 불발에 따른 아르헨티나 디폴트 리스크 등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중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전월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스피지수 추가반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코스피지수의 장기 박스권 돌파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우선 유로존과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신흥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어 이머징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가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로 3분기 국내기업들의 실적 추경치 역시 8월 이후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안정과 미국 통화정책변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전망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코스피지수의 장기 박스권 돌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중국경기지표 호전과 국내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로 기존 1900~2000포인트에서 2000~2100 포인트로 한단계 높아진 박스권을 예상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9월 선물옵션 등 시간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이번 주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선물포지션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시장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돌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조정시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유동성장세 수혜주인 증권, 은행, 건설업종과 정부정책 수혜주인 배당관련 주 및 지배구조관련 핵심기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상가건물매매

7층 사무나 건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무동 장애상사이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①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②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전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개 50평 무회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③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④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시설완비 최고위치 성황리 영업중

식사 및 커피전문점

신한 010-6670-9800

동네 어르신들과 고객들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시티옥사우나

새단장 오픈

(구)도시대중사우나

오픈행사

8.1~9.30까지

3만원 이용시 티켓 13매 무료

6만원 이용시 티켓 30매 무료

16만원 이용시 티켓 100매 무료

경품권 추천

1위 세탁기 (30만원 상당)

2위 무료티켓 (10만원 상당)

3위 무료티켓 (6만원 상당)

직원 구함

여 - 카운터

남 - 청소 및 관리

대신시티빌딩

시티옥사우나

북구 우산동 518-80번지 안보회관 옆

010-6832-970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은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장남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후문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대신

010-6832-97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토지1735㎡, 건2303㎡) 감정 30억6, 최저21억(유통마트적합)
- 서구치평동 상무지구 근린시설(토지1599㎡, 건17380㎡) 감정 223억, 최저223억(상무지구 중심가)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토지4756㎡, 건1478㎡) 감정 276억, 최저276억(상무지구)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토지951㎡, 건2652㎡) 감정 26억, 최저11억(신안사거리 대로변)
- 북구 오치동 근린시설(토지338㎡, 건659㎡) 감정 5억, 최저5억(오치대로변)
- 북구 운암동 근린시설(토지780㎡, 건1992㎡) 감정 24억, 최저17억(대인동 대로변)

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토지112㎡, 건200㎡) 감정 3억8천, 최저1억1천(두암동)
- 북구 유동 근린주택(토지229㎡, 건608㎡) 감정 1억6천, 최저2억6천(유동 대로변)
- 동구 충장로 근린주택(토지155㎡, 건454㎡) 감정 3억4천, 최저1억9천(충장로 530코너)
- 북구 오치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1억6천, 최저7천4백(오치동)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1억2천, 최저5천(운암동)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토지138.8㎡, 건202㎡) 감정 2억4천, 최저1억7천(신안동)

호텔

- 광산구 쌍암동 호텔(토지1182㎡, 건2289㎡) 감정 32억, 최저22억(쌍암동 코너)

대지

- 동구계림동 대지(토지511㎡) 감정 6억9천, 최저3억8천(광주교앞 공터)
- 광산구 소촌동 대지(토지1956㎡) 감정 20억, 최저14억(광주교앞, 송정역 부근)

경매직접취급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공,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등산로 중심도로 점)

보3천 월300만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주)대신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3층) 85평신안은행 뒤.모아엘가A 상가임대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임)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2억5천 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동경기장 쪽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석 1번 출구 2층(물수리 전체제품 신규교체 임대료완,주인거주가능)
 - 11평 매가33천4백(보200 월27 용1천)
-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임)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 15평(수리)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 10평(수리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 북구 우산동 사무나 건물 7층 (대96, 2564) 수익 900 매11억
- 광산구 오월드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2500 매가 35억
- 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민주택 매가 11억8천
-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점포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신한 062-521-1060